■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 16장 27-33절**

Tag:

>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
> 28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
>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
>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
>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
>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
>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27-33)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는 이야기, 이제 곧 다시 천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씀, 그렇지만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으니 왜냐면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만의 독특성이다. 탄생 이야기가 빠진 이유는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아주 자세하게 여러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다.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쳐 두지 않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천하실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흘려듣거나 무관심해서 금방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제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는 주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틈만 나면 예수님의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들은 대신들이 될 것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 달라고 떼를 쓰기도해서 야단을 맞기도 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신 내용은
1.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
2.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3. 위의 사실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
4. 왜 믿음이 중요하느냐 하면,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내(제자들,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만약 평상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런 척 하기 때문임. 그러나 평상시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자신의 몸도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됨.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중요하

며, 잘 지키는 자나 민족일수록 그 삶이 행복해 짐)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임.
5. 당장은 잊어버리더라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 하나 생각이 나서 쉽게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바르게 해석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이 확실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기적이 단순히 기적으로서의 기능만을 하도록 하신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건지시려는 의도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가지신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다.
-비록 현재는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을 나타낼 수 없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잠시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상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은 믿지 않고서는 힘이 들어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중요해짐.
-전능자가 나와 무관하지 않게 됨.
-사람의 영혼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임.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됨.
-믿음이 생기면 모든 소외로부터 자유로워짐.

(경제적 소외, 관계적 소외, 지역적 소외, 문화적 소외, 지식적 소외 등-소위 따라쟁이가 되지 않아도 됨을 느끼게 됨.)

-예수님은 모든 자유로움의 근원이심.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